플로이드, 사망 보름만에 고향 휴스턴서 영면

체포 도중 숨진 이튿날부터
美 넘어 전세계로 시위 번져
가담 경찰 4명 전원 기소
'경찰 개혁' 등 변화 미지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를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마침내 9일(현지시간) 고향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메모리얼데이 휴일이었던 지난달 25일 저녁 무렵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의 식료품점 앞 길바닥에서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 싸늘한 주검이 된 지 15일 만이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20달러짜리 위조지폐 사용이었으나 법정은커녕 경찰서까지 가보기도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셈이 됐다.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4) 등 당시 체포 현장에 있던 경찰 4명은 결국 이튿날 전원 해고됐다.

그러나 그날 밤 미니애폴리스 거리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경찰차가 부서졌고 경찰서 벽에는 그라피티(낙서)가 그려졌다. 전 세계로 번진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시위는 더 거칠어졌다. 시위대는 수천 명으로 불었고, 식당과 대형마트, 자동차 부품점 등은 불길에 휩싸인 채 약탈 대상이 됐다. 쇼빈이 일하던 경찰서도 불에 탔다. 시위는 분노를 타고 다른 도시로도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플로이드가 죽기 전 내뱉은 '숨 쉴 수가 없다'는 문장은 인종 차별의 무게에 짓눌려온 시위대의 구호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시위대에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대신 군 투입과 총격으로 맞서겠다며 주먹을 치켜올려 분노를 키웠다.

그는 지난달 29일 새벽 시위대를 '폭력배'로 규정하면서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이 트윗은 정치권 등에서 큰 논란이 됐고, 트위터는 '폭력 미화'라며 이 트윗을 차단했다.

이날 밤 수도 워싱턴DC와 애틀랜타, 브루클린, 맨해튼, 디트로이트 등 주요 도시로 시위가 확산했다. 시위의 폭력성은 일요일인 지난달 31일 정점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백악관 건너편 교회 앞에서 성경을 손에 든 채 사진을 찍었다. 특히 이 교회로 가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롭게 시위하던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쏴 해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3일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쇼빈에게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를 추가하고, 쇼빈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모두 기소했다.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2급 살인 공모' 등 혐의가 적용됐다.

플로이드는 9일 학창 시절을 포함해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휴스턴의 외곽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묻혔다. 어머니가 묻힌 바로 옆자리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 예산 지원 중단과 경찰 해체를 선언하고, 미니애폴리스시는 경찰관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는 경찰에 지원하던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 분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폭력 등에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찰 개혁법안을 내놨다.

AP 통신은 장례식에 맞춰 "조지 플로이드는 전 세계에 변화의 힘을 일으킨 '빅 플로이드'가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관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펄랜드의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스 묘지로 향하는 동안 몇몇 경찰관들이 줄을 지어 운구 행렬을 인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코로나19 제한 해제 첫 날

러시아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 첫날인 9일(현지시간) 한 어린이가 모스크바 고리키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美 파우치 소장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시작"

백신·치료제 개발엔 낙관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로 평가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미국 생명공학 혁신 정기 콘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에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제 시작 단계다.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통틀어 700여만 명, 사망자는 40여만 명에 이른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를 두고 '최악의 악몽'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종인 데다 호흡기 질환이며,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아 바이러스가 지닐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통제불능 상태로 전 세계에 확산한 현실과 비교할 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HIV), 에볼라가 단순했다는 평가까지 내렸다.

그는 "사스, HIV, 에볼라는 발병 초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다"며 "특히 사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하지 않아 공공보건정책만으로도 스스로 사라지도록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가능성은 낙관했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기에 백신 업계에서 하나 이상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124개 이상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연합뉴스

흑인은 폭력적?…NHK, 동영상에 비판 쇄도

미국 대리대사 "모욕적이다"
파문 커지자 삭제하고 사과

일본 공영방송 NHK가 미국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인해 흑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흑인을 폭력적 이미지로 묘사한 동영상을 공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10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NHK는 국제 문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7일 방영한 1분 20초 길이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다'는 지적을 샀다.

문제의 영상에는 탱크톱 셔츠를 입은 근육질의 흑인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등장해 거친 말투로 '백인은 평균 자산이 흑인의 7배다'라고 말하며 시위의 배경에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격차가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흑인 남녀가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차량이 불타는 장면을 그려 폭동을 연상시켰다. NHK는 본 방송 때 항의 시위를 촉발한 경찰관의 흑인 살해 및 폭력에 관한 역사를 해설했으나 프로그램 공식 트위터에 해당 동영상에서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동영상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조지프 영 주일본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이 동영상은 더 많은 고찰과 주의가 필요했다.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모욕적이고 무신경하다"고 트위터에서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NHK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실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불쾌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디다스, 흑인 직원 반발에 2천만달러 지원

미국 내 신규채용 30%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선발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아디다스가 흑인 직원을 홀대한다는 내부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내 흑인 채용을 늘리고 흑인사회에 2000만달러(239억 3000여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디다스는 미국 내 아디다스와 리복의 신규 채용인원 중 적어도 30%를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채우고 향후 5년 동안 50개 대학의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디다스는 또 농구 프로그램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흑인사회에 2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지난 2주간 아디다스와 리복 경영진이 흑인종업원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이번 주 포틀랜드와 보스턴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의 이번 조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차별적인 기업문화부터 바꾸라는 흑인 직원들의 요구가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흑인 직원들은 지난주 경영진에 내년까지 모든 직급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비율을 31%까지 늘리고 매년 흑인사회에 5000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아디다스 흑인 직원들은 경영진 6명과 이사진 16명 중 흑인은 한 명도 없다면서 내부적인 기업문화는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임신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태에 해롭다"

美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
여성 1850만명 기록 분석

임신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모태 모두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마시는데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으로 방치하면 간 섬유화-간 경화-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의대 소화기-간장학 전문의 모니카 사카르 교수 연구팀이 2007~2016년 사이에 임신 20주 이후에 출산한 여성 1850만명(18세 이상)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임신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모체에는 임신중독증인 자간전증과 자간증, 헬프 증후군(HELLP syndrome), 산후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자간전증과 자간증은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손, 다리, 얼굴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 중 하나다.

헬프 증후군은 용혈(hemolysis), 간효소 수치 증가, 혈소판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임신 합병증의 하나로 간 등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임신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면 또 조산 위험도 높아져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2007년 10만명 당 10.5명에서 2015년에는 10만명 당 28.9명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